

1991

10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시편 서론

시편의 명칭은 영어로는 Psalm인데, 칠십인역의 명칭 '프살모이'(Psalmoi)를 음역한 것이며 그 뜻은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이다.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된 시편은 각각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의 다섯 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후대에 나누어진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전편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신앙공동체의 시, 개인적인 신앙고백의 시, 찬양의 시, 그리고 왕의 시 등이 그것이다. 저자별로 본다면, 다윗의 시가 73편,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아삽의 시가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그리고 에단과 모세의 시가 각각 한편 씩이다. 나머지 50편은 저자미상이다. 이같이 그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이므로 시편을 말할 때 '다윗의 시'라고도 부른다. 시편의 내용에서 볼 때 유일신관이 왕권사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은 극단적인 악인과 극단적인 의인의 대결의 장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또 시편은 사회적인 죄 뿐 아니라 영적이며 개인적인 죄를 깊이 다룬다. 악인의 번영이 있으나 영구치 못하므로 의인이 낙심할바 아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결국 메시아를 대망케 하며 주의 나라의 궁극성을 바라보게 해준다.

10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평강
3.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체력과 헌신
4. 의료선교대회, 장애인복음화대회, 바자회의 성공
5. 전 교구와 교회학교의 부흥
6. 목회자 세미나의 지속적 결실
7. 제3목양관, 사랑의 집 속한 건축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시라」(46 : 1)

이 시는 열왕기하 18, 19장을 배경으로한 것인데, 예루살렘이 앓수르의 군대에게 포위되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난 후 부른 노래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며 타인의 도움이나 힘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도움과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은 아주 극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것 같은 상황은 매우 어려운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라 할찌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적군이 주위를 포위해도 요동치 않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에서 영감을 얻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어 종교 개혁의 그 극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 * 내가 가지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으로 우리를 지키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같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 (수)하나님을 찬양하라

산송30 성경, 시47 : 1-9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47 : 6)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악의 세력을 좌우하시고 선을 주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므로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며 거룩한 통치입니다. 이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같은 통치로 인하여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쁨으로 즐거히 찬양하며, 진심으로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 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땅의 왕으로서 그의 거룩하고 영원한 통치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 찬양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영광돌리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어느덧 우리 마음은 감격하여 큰 기쁨으로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말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한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며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을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날마다 평강과 강건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48 : 14)

본문의 14절은 시편48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48편의 모든 귀절을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영영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1절).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놀라운 지혜로 만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다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라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2-8절). 그는 환난을 당할 때에 도와주시며 세상의 어떠한 대적도 다 물리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권세와 무력,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굳건한 방패가 되십니다. 이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엄청난 환난이 닥쳐도 안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십니다(9-13절). 사람에게에는 정의가 없고 불의만 가득하여 세상은 점점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정의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오직 우리는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인자하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같은 하나님이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생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기도 오늘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의료선교대회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4 (금)만민들아 들으라

찬송258 성경, 시49 : 1-11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49 : 8)

우리 주위에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이를 뽐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할지는 몰라도 인생의 근본 문제인 생명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만민이 들어야 할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출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샅인 사망을 해결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나 권세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실은 우매한 것입니다.

****** 재물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집착하거나 불신자의 물질적 안락함을 부러워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 즉 영적인 부요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기도 재물을 의지하고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양무리를 바로 돌보게 하소서.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49 : 20)

사람이 재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이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재물은 일시적이며 장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 많은 재물을 내가 죽을 때에는 가져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던 영광도 영구히 함께 하지는 못함을 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동전 한 닢, 보석 한 조각도 죽음 너머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재물이 부요한 자를 볼 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성도가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존귀에 처하고 높은 위치에 있게 되더라도 성도는 마음에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평생 수고하여 쌓아놓은 재물은 결국 가져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헛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함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의 재물에 취하여 짐승처럼 죽는 자가 되기 보다는 비록 현재는 어렵지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을 의지할 때에 짐승처럼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창조의 목적인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을 주실 것을 믿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감건함으로 함께 하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50 : 14)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최후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같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 그 자체에 궁극적 관심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제물을 식물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드리는 자의 마음을 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를 받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만을 의지하여 환난 날에 그에게 매달리는 자를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헌신과 서원한 봉사를 그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더우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 주일 예배 시의 나의 감사와 기도, 찬양 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 일꾼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봉사가 교회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행위를 옮겨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0 : 23)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고 재난과 불행을 만날 때가 있고 질병과 슬픔과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그릇된 행위와 죄를 찾아내어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불평대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유익함을 주시기 때문이며 환난 후에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진정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나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확실한 길입니다.

****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암송하고 생활 가운데서는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나의 생활과 우리 가정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하나님앞에서 바른 삶을 점검하여 살아야 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는 원망하지 말고 지은 죄를 찾아 겸손히 회개하며 불평하기 대신에 감사하며, 부질없는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바른 삶을 살려는 결심을 새롭게해야 합니다.**

기도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소서. 진행되는 이번 학기 목회자세미나가 감단을 풍성케하는데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8 (화)우슬초와 예수 그리스도

찬송197 성경, 시51 : 1-8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51 : 7)

우슬초라는 식물은 박하향을 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만지는 자에게는 향기가 배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향기로서 우슬초에서 나오는 박하향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슬초의 박하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능히 죽은 사람을 살리며, 인격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우슬초는 제사장이 사용했던 풀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풀을 가지고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풀은 정결의 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리사 전 인류를 정결케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로서 이 생명의 예식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사 이천 년 동안 기독교 성례가 거행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전 인류의 죄악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 우슬초로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흉악한 문둥병에서 해방을 얻고 참된 기쁨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슬초는 오늘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죄씻음을 얻고,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장애인 복음화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을 권고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51 : 17)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각종 제사 제도를 명하시고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서원, 헌신, 충성, 속죄의 마음이 제물로 표시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 없이 제물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혀 제사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속죄와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고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속죄는 죄인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궁극적 계시인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얻어집니다. 또한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헌금도 마음과 분리된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기본 정신은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제물로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물과 함께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새로이 탄생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뿐 아니라 우리 생명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함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때 진정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 갑니까?

기도 예배 드릴때 올바른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진리안에서 더욱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늘 부흥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52 : 7)

본문에서 악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그들이었기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든든케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생명의 주인으로서 행세하였습니다. 더욱 그들은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패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악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인간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자신을 의지하는 악인은 멸망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각 전도회를 통해 전도의 불길이 일어 많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53 : 1)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육체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므로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든가, 설교를 듣고 감동한다든가, 찬송을 부르며 감격해 할 수 있는 영적 감동의 세계에 대하여 전혀 무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즐거움과, 거기서 얻는 삶의 활력과 용기와 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하므로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 즉 기사와 이적을 그들은 알지 못하므로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인간의 가장 심오하고 근원적인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므로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심령의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채념이 있을 뿐, 죽음을 극복하는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행동이 있으면 평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생이 있으면 저생이 있고, 삶이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54 : 4)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또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어 원수에 대항하지 못하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도에 따라서 악인의 악행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에게 보응하듯이 우리들의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 다윗은 고통 중에서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고난 중에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환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에만,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55 : 13)

다윗의 가장 큰 슬픔은 원수들의 핍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던 자, 자신과 뜻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던 동료의 배반과 그로 인한 핍박이 그의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자가 다윗을 해치는 데 가장 앞장선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하며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적은 하나님의 전에서 다윗과 함께 의논하며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듯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해하는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만큼 복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진실입니다.

* * 세상의 우정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서로의 건강을 빌다가 내일 상해하는 것이 세상의 우정이요, 오늘 형통함을 빌다가 내일 서로를 헐뜯는 것이 세상의 우정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이 있습니다. 주되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우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사랑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같이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기도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만을 위해 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제3목양관공사가 주의 은혜안에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55 : 2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 앞에 가져오는 자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고통 중에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스스로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적절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한 죄의식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풍성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온갖 고통에 시달린다면 여호와께 그 모든 짐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맡길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짐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짐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는 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짐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런 은혜의 섭리요 응답인 것을 말해줍니다.

****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짐은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업인 전도회를 통해 직장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56 : 10)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쁨을 아시며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바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다윗과 같은 과거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처절한 절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러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는 자신의 슬픔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자상한 관심과 연민의 정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환란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슬픔과 펄박과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자들의 눈물이 쏟아지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미쁘시며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57 : 3)

이 시는 표제에 나타난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있을 때에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역경 가운데 있었으며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와같은 극한 핍박의 상황에서 주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자와 진리로 나타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리만큼 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경 중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역경 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셨으므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58 : 11)

이 시는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할 때에, 장로들이 사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다윗은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재판관의 불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악을 계획하였으며 손으로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악인의 죄가 독사의 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독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의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과는 급속히 멸망하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상급으로 보상될 것이고 우리의 잘못은 책망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생명록 이외에도 행위록(계20:12)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59 : 16)

일촉즉발의 위기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삼상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 집을 포위하였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신있게 요청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을 만한 죄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고히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도 간간히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마5: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고통이 승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은 담대해지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고한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약속이행에 대한 확신은 고통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60 : 4)

다윗은 그의 왕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시편도 전쟁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애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비록 애가이지만 또한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특이한 단어를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은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지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한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그 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배했을 때, 그 기의 영광은 짓밟혔습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패배한 날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할 때 결정적인 비극은 그들이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든 기능이 수치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 * '기'는 여호와와 그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승리할 때에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존귀함을 입게 되지만, 패배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것발이 힘차게 펴려있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우리의 승리와 실패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되어 있음을 잊지말게 하옵소서. 연변에 신학교를 속히 건립케 하옵소서.

「내 마음이 놀릴 때에」(61 : 2)

누구나 한번쯤 무언가에 억눌려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다닐 때에 큰 억눌림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의하여 크건 작건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갖가지 죄악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억눌림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짐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나는 그제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마음이 놀려야 할 경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후11장28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마음이 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 영혼을 위한 심적 억눌림은 그리스도 인의 마음에 가장 고귀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했던 소돔 성민에 대한 심적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의인 50, 45, 40, 30, 20, 10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심적 억눌림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억눌림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62 : 5)

이 시의 배경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할 때 기록된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는 '오직', '~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오직의 시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의지와 신뢰가 아니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학식, 물질, 사회적 지위를 또한 부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2, 6절) 이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본 장에서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과 '산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라는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흥미롭게도 '저주'와 '무중량'이란 말이 같은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무거운'과 '영광돌리다'라는 말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이런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 매일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을 통해 독일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62 : 11)

시62편의 결론인 이 31절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한두번’이라는 수의 표현은 성경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17장6절에 ‘두셋’ 잠30장18절에 ‘서넛’, 잠6장16절에 ‘육칠’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11절 초두의 말씀의 의미가 한두번 정도 밖에 듣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만일 내가 그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천번 이상 들어 왔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강조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서 수천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온 인생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한두번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 십자가의 진리는 한두번 들려 주어서는 안될 만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를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듣는 자의 귀가 따갑도록 되도록 많이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은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행5:42).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63 : 4)

이 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열망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메마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 몹시 갈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육체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열망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의 모습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시42:1).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나 봉사나 매일매일의 삶에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3-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 *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과 장소를 밤중, 침상에서 라고 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은밀한 시간이며 어두움의 시간이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도 중한 범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삼하 11:2-5). 따라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다윗의 고백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직짓는 은밀한 시간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지난 김치세미나에서 수련한 각국의 목회자들이 자국에서 귀한 결실을 지속적으로 거두게 하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보존하소서」(64 : 1)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은 극단적인 악인과 극단적인 의인의 대결의 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철저하도록 파괴적이고 생명을 빼앗으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악인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원수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1절). 사실 다윗은 그의 전생애에 걸쳐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다윗의 전생애를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 무계획적 위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한 죄를 내었고(2절)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습니다(3절).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끊임없이 묘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인생은 어찌보면 악인에게 위태로움을 당하기 쉽고, 참으로 두려움 속에서 근심할 수 밖에 없는 것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원수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러한 도전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이 되었습니다.

****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스스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팔라우의 김익경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부흥과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65 : 1)

민는 자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변화되는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인생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발견케 되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5절). 그러나 이것은 첫번째 감사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세계를 더듬을 줄 아는 영혼의 눈을 뜨게합니다. 우리는 자연만물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의 신앙 세계를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생명을 풍요하게 하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年事)에 관썩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11-13절).

＊ ＊ 교회를 다닌지도 오래되었고 신앙의 체험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직분자로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자라야 하며 내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며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도 주여 목마른 내영혼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전심으로 찬양케 하소서. 이스라엘의 김주경 선교사님의 사역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소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66 : 4)

성도가 지니는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야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자세란 첫째로, 찬양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물의 주관자로서 친히 삼라만상의 생성과 질서를 관장하십니다. 그는 마치 자상한 정원지기가 정성스레 화초를 다듬듯이 온 우주를 자상히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즐거움으로,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지어다”(1, 2절) 이와함께 요구되는 것은 신앙적 우주관입니다. ‘온 땅’이란 온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가진 모든 영혼을 의미합니다(시150:6참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세계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무신론에서 벗어나,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환란 속에서도 절망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자(행16:25), 믿음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바라보는 우주적 신앙관을 소유한 자만이 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역사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찬양케하소서. 수리남의 안석렬 선교사님의 정착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그 가정에 주의 큰 보살핌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66 :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16절) 어떤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또는 어떤 큰 축복을 받아 즐거워하는 심령이 그 즐거운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감정들은 표출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사함 받은 죄인은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받은 특전들과 즐거움들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가 어찌나 컸던지 그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서원했던 바를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13-15절). 그의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4:28, 29).

***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지가 오래되었어도 아직 한 번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해 보지도 못하고 전도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전도하려면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소서. 서사모아의 박행렬, 장부용 의료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67 : 2)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삼아 온 세계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2절의 '만방'과 상반되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소원하는 탄원서로서 반복법을 통한 강조(3, 5절)와 '만방' '모든 민족' '열방' '땅의 모든 끝' 등 다양한 언어 표현을 통해 구원의 대상의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 당연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7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면 언젠가는 온 땅이 마치 물이 바다를 다 덮는 것과 같이 주를 알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참조. 사11:10, 11).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들이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자는 그 복을 소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의 교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이웃과 나누며 세계 교회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 우리를 이웃과 세계 교회위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자가 되게 하소서. 파키스탄의 의료팀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일들위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홀으시며」(68 : 1)

1절의 기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으로 전진할 때 모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민10:35). 적들은 법궤가 전진하는 길목을 막아 버티어 서 있었고, 법궤가 앞으로 나아가자면 하나님께서 살피사 그 적들을 물리쳐 홀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전진을 하든지간에 그 전진을 방해하는 적이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어떤 종류의 전진을 하든지 그 전진을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일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이기심, 독재, 증오, 속된 마음, 불신 등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어떤 구체적인 적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반면, 신약성경에서는 적의 혹은 원한, 증오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마치 태양이 어둠의 적을 물리치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와같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적들과 맞서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0-12).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68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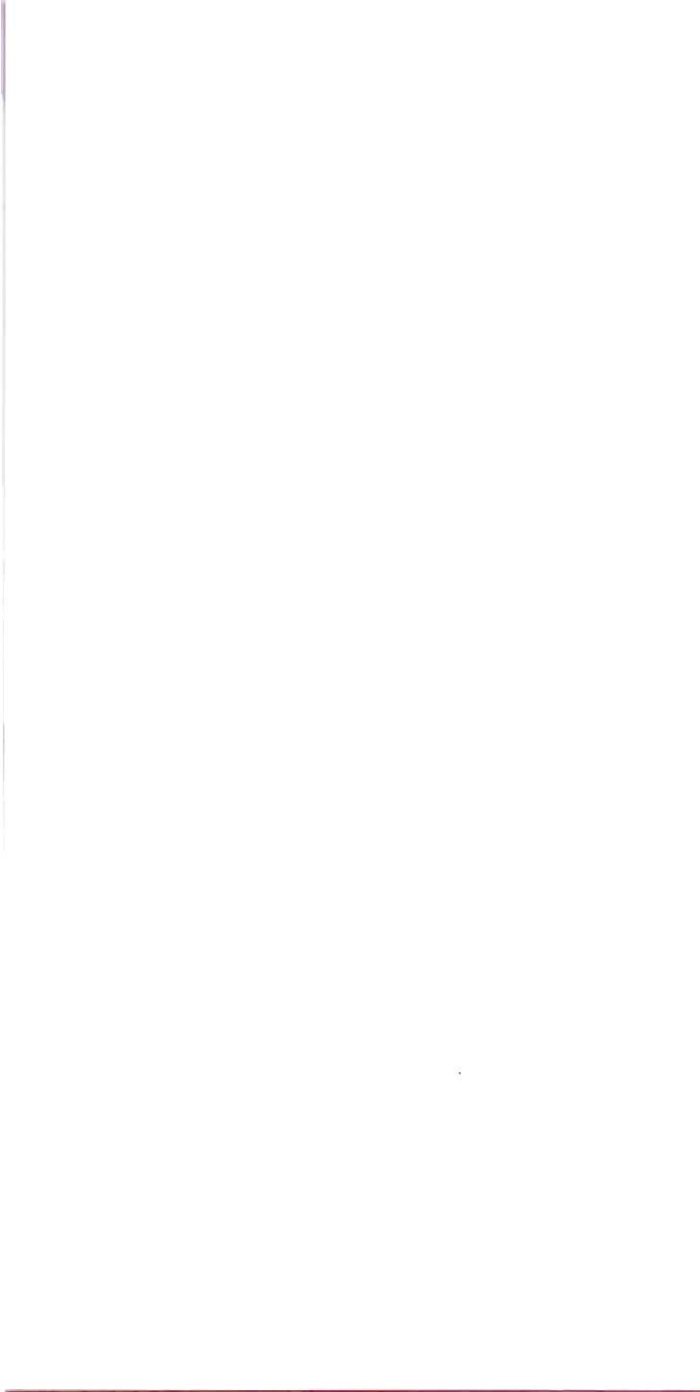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이 되신다는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열렬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짐을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불을 밝힘으로써 그 안에 희망의 등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영혼의 배는 희망의 등불이 비출 때에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여하시는 이 희망이라는 힘 덕분에 험난한 바다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하나님은 인간이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이시며(20절), 끈질기게 따라오는 적을 능히 무찌르실 분이십니다(21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에 그는 이 땅에 내려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22, 23절).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 * 생활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진 짐들이 지닌 의미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의 「교훈을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68 : 32)

시편 68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물을 회복하는(계21:5) 미래사의 관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시편 기자의 표현들이 모든 이방인의 세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회심에 대한 원대한 희망으로 맥박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미래의 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승리가 전 지역에 걸쳐서 증거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24절상). 또한 '그 때'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즐겁게 축하될 것이며(25-27절), '그 때'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29-31절) 하나님은 참으로 전세계적으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전우주적이며(3절), 전능하시며(3, 34절) 특히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 위에 위엄과 영광으로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34, 35절).

** 오늘의 성도는 21세기의 하나님 나라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약속된 환상을 보고, 기도로 역사를 창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있는 소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